

“무자년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쥐띠 사회복지인 새해 소망 · 포부

정해년(丁亥年) 황금돼지해가 가고 희망찬 무자년(戊子年) 쥐의 새해가 밝았다. 2007년 세밑, 자신의 해를 앞둔 쥐띠 사회복지인들이 제주시 신산공원에 모여 새해 소망과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한결같이 “새해에는 사회복지계에 항상 웃을 수 있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 자원봉사자 변대연씨(1960년생)=앞으로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을 돕는 봉사활동에 나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

▲ 최은미 유진재활센터 원장(1960년생)=예산이 부족해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미안하고, 시설 운영에 힘든 점이 많다. 새해에는 시설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후원이 이뤄졌으면 한다.

▲ 자원봉사자 한강운씨(1972년생)=올해도 자원봉사자들의 웃는 얼굴이 그대로였으면... 올해도 자원봉사자들의 건강한 모습이 그대로였으면... 올해도 자원봉사자들의 가슴에 행복이 그대로였으면... 이런



△정해년 세밑, 제주시 신산공원에 모인 쥐띠 사회복지인들.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고봉운 · 한강운 · 현승미 · 김진영 · 임미진 · 변대연 · 최은미씨.

작은 소망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 고봉운 제주보육원 팀장(1972년생)=아이들에게 웃음을 가르치는 것은 행복의 씨앗을 미리 뿌리는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밝게 웃을 수 있는 2008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 김진영 제주케어하우스 팀장(1972년생)=저희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23명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하겠다. 또한 가족들이 건강하고 성실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아내, 주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청각장애인 임미진씨(1972년생)=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고 장애인들을 좀더 따뜻한 눈길로 보고 대해줬으면 한다. 장애는 단지 불편한 것이며 누구에게나 장애는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버팀목이 되고 싶다.

▲ 현승미씨(1984년생 · 제주장애인요양원 사회복지사)=힘들어 하는 누군가에게 미소와 사랑 칭찬 위로 화해 나눔 친절 감사 용기 감동 도움 용서 웃음 진실 희망 기쁨 지혜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모든 이가 행복해지는 새해가 됐으면...

지면소개

- 종합 2 · 3면
이경희 도보간복지여성국장 인터뷰
시설 탐방 · 제주애덕의집
- 사회복지소식 4 · 5면
섭식케어 사례발표회 · 소식마당
사랑의김장간지 행사 · 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 · 시론 · 독자의소리
- 특집 7면
새해 달려가는 복지사책

“사회복지인의 꿈과 희망의 요람”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준공식 및 무자년 사회복지인 신년하례회

일시 : 2008년 1월 7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www.jejubokji.net
제주시 화북1동 1112-1 / Tel. 064-702-3783~4 Fax. 064-702-3383

Interview 신년인터뷰

이 경 희 도보건복지여성국장

“체감형 복지 강화해
도민만족지수 UP”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행정을 이끌고 있는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장은 “체감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2010년에는 사회복지예산을 20% 대까지 늘려 ‘사회복지모범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 복지행정 역점 추진사업은.

- 올해 복지행정의 비전을 ‘체감형 복지강화로 도민만족지수 TOP’으로 정했다. 민·産·官이 함께 하는 참여 복지 추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 추진 강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도전,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 평생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건강도시 구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 지난해 3945억원보다 348억원이 증가한 4293억원을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여성, 아동보육, 가족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해 도민들의 복지체감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층부문 1290억원, 보육·가족·여성부문 974억원, 노인·청소년부문 891억원, 장애인부문 368억원, 보건의료부문 231억원, 보훈·사회복지일반 152억원 등이다.

▲일부에서는 사회복지예산 20% 이상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모범도’ 실현 약속

이 공약(空約)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모범도’ 실현 방안은.

- 올해 도 전체예산 중 17.4%가 복지분야 예산으로 배정이 되고 있다. 우리도가 다른 시·도의 복지예산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도의 어려운 예산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다른 분야에 우선해 복지



이 경 희 국장

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앞으로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분야 예산확보,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도민홍보, 담당

복지예산 20% 확충 ‘사회복지모범도’ 실현

사회복지인 의견 수렴 복지환경 적극 대처

분야 예산을 배정,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10년까지는 20%대까지 복지예산을 늘려 ‘사회복지모범도’를 실현, 도민 복지 증진과 체감형 복지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으로 인해 복지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도민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부터 경로연금이 폐지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두가지 제도의 시행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빈곤문제와 건강문제 해결로 노후생활의 안정과 노

공무원 직무연찬과 워크숍, 일선 사회복지인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새해를 맞아 도내 사회복지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다. 행정에서 아무리 무리 좋은 계획이나 특수사책을 발굴하더라도 일선에 계신 사회복지인들이 없다면 도민 복지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주에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수놓을 정신이 있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제주의 복지행정이 도약을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역량을 모아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회복지인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평가는 문화·집회시설 및 숙박시설 95곳을 대상으로 1차 평가(기초평가)를 통해 상위 30%(29곳)을 선정한 뒤 건축관련 교수, 장애인, 건축사, 편의시설지원센터 기술요원, 공무원 등 5명으로 평가단을 구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 2차 평가(본평가)를 실시했다.

인증기준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 제도를 점차 확대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제4대 道사회복지협의회장에 이동한회장 선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4대 회장에 이동한 현회장이 선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12월 28일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2007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이동한 회장을 연임 선출했다.

이동한 회장은 선출 직후 “협의회 회관 신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상설 운영하고, 제주사회복지를 효율적·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08년 1월 13일부터 2011년 1월 12일까지

로 3년이다.

이동한 회장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 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김성산 부회장(남제주요양원장) 등 6명, 김정현 이사(제주종합사회복지관장) 등 13명, 감사 2명도 함께 선출됐다.

이 동 한
道사회복지협의회장

道사회복지협의회 화북에 둥지 틀다

사회복지종사자 전문교육훈련시설 자리매김 전망

제주지역 민간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가 제주시 화북동에 새 둥지를 틀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12억500만원(지부담 1억2500만원)을 들여 부지 2019㎡에 건축 연면적 597㎡, 지상 2층 규모로 회관을 신축, 오는 7월 준공식을 갖는다.

회관 2층에는 120여명을 한 번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을 마련했으며, 특히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산교육실도 갖춰 도내 유일의 사회복지종사자 전문교육훈련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도민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연말까지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등 7개 분

야 19개 과정에서 4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싶었으나 지난해까지는 교육장소를 구하지 못해 힘들었다”며 “이제는 1년 내내 교육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도 시설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무자년 새해를 맞아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기원하고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할 신년하례회도 오전 11시부터 열린다.

신년하례회에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양대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장애 인증 우수시설 8곳 선정

道, ‘장애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와 연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이 가장 편한 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우수 시설을 선정, 앞으로 무장애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무장애 인증시설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우수상에는 대명리조트(대표 조현철)와 사인빌럭셔리리조트(대표 박찬수), 스위트호텔제주(대표 이정자) 등

3개 시설이 선정됐다. 이들 시설에는 인증 명패와 상사업비 1000만원이 지원됐다.

장려상에는 소리삼박물관(대표 황영준)과 롯데호텔제주(대표 장경직), 트레블러스호텔제주(대표 이정우), 더호텔제주(대표 제프리 맥도웰), 서귀포KAL호텔(대표 이종희) 등 5곳이 선정됐다. 이들 시설에는 인증서와 시상금 200만원이 지원됐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월동 난방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구당 7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원유가 상승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 월동비 부담으로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돼 안정된 생활을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 가구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1566가구이며, 지원액은 총 8억900만원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비와 주거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으며, 자녀교육비와 해산·장제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시설탐방

(2)애덕의 집



“장애인들에게 무조건 사랑 실천”

개원한 지 4년 만에 2007년 전국사회복지 시설평가에서 장애인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제주애덕의 집(원장 이대원 신부). 봄벌처럼 따스한 겨울햇살이 쏟아 지던 12월 중순, 중증장애인들의 요람인 제주 애덕의 집을 찾았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 다채...장애인시설 ‘우수’

이 원장 “중증장애인 ‘멘토’ 역할 성실히 수행”

2003년, 하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기 위해 제주 시 화북동에 문을 연 제주애덕의 집에는 장애인 49명(정원 50명)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해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요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인 산하에 장애인 생활시설인 가를로의 집과 작업활동시설인 일 배움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운영상의 어려움과 굴곡을 겪었지만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년 연속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한-일 장애인 가족 문화교류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장애인이 사회에 합류할 수 있는 창구 등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도에는 ‘생활시설 내 과잉행동 및 부적응 중증장애인의 사회성 향상을 위

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시도해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원예경험과 자극을 체험시켜 자신감과 성취감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그룹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비행청소년과 사춘기를 보내는 학생들이 장애인들과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올바른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적응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던 중 2005년 제주도교육청에서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을 의뢰받아 일주일간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 학교 적응력을 회복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

올해에만 도내 중·고등학교 부적응학생 41명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 사회와 가족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에

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는 이 원장은 “장애인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 나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항상 가족에 대한 끈끈함이 자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모두가 그들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하며, 끝이 없는 항해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주애덕의 집의 운영 방침에 대해 “우리 시설이 중증장애인들의 ‘멘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해답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정도(正道)의 길, 그 길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도자와 동반자 역할을 함께 해 그들의 삶에 맛있는 사랑이 스며들도록 양념 역할을 수행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8세 이상 1급 중증장애인이면 입소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이다.

문의 = 064) 724-8101~2.

〈이명자 명예기자〉

특수학교에 2년제 전공과 첫 신설

영지교·영송교에...25일까지 원서 접수

제주 지역 특수학교인 제주 영지학교와 제주영송학교에 처음으로 2년 과정의 전공과가 신설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이후 대학진학이 불가능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의 취업 기반 조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이들 2개 학교에 전공과를 신설한다.

도교육청은 제주 특성에 맞는 전공과 설치를 위해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 다른 시·도의 운영 사례와 도내 직업재활 현황 등

을 파악하며 종합검토를 마쳤다.

전공과는 도내 산업체, 직업재활시설,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 체제를 구축,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장애영역에 따른 학교특성, 취업현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졸업 이후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모집 인원은 각 학교마다 학급당 10명이며,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이면 입학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5일까지다.

문의=제주영지학교 064-755-2004, 제주영송학교 064-748-2064~5.

오익철 道 복지청소년과장 ‘아이디어뱅크’

공무원 제안심사서 3차례 ‘우수상’ 기입

오익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이 2007년 공무원 제안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출산장려제도’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요 제안내용은 ▲다자녀 가정 아파트 우선 임대·분양 입주권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항공료·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 ▲다자녀 가정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 제도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희망보직제와 평정시 가점 부여 등 우대공무원제 시행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시 가족복지포인트

우대 등이

다. 특히 오익철 과장은 1999년 경영수익사업 제안공모 때

‘녹차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02년에도 ‘한라산과 백두산 자매결연을 통한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상을 거머쥐는 등 이번까지 3차례나 우수상을 수상하며 ‘아이디어뱅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오익철 과장

재활전문센터 서귀포에 들어선다

270억 투입...150병동 규모

종합적인 재활 의료서비스 시설을 갖춘 150병동 규모의 재활전문센터가 서귀포시에 들어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270억원(국비·지방비 각 135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서귀동에 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재활전문센터는 재활클리닉과 보장구수리센터 등의 외래진료 부문, 물리·언어 치료와 임상검사실 등의 중앙진료 부문, 약국과 교육연구실 등의 서비스 부문, 직업 재활 및 사회심리재활센터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척추환우들이 사용할 체육시설 확보와 외래

진료환자 서비스 증대, 재활장비 추가 보강, 자폐아동을 위한 사회심리 치료시설 보완, 사회심리 재활영역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 반영할 방침이다.

성이시돌요양원서 ‘넌센스’ 공연

한국연극협회 김포시지부는 12월 28일 성이시돌요양원에서 뮤지컬 ‘넌센스’를 공연, 호응을 얻었다.

한국연극협회 김포시지부는 2007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일환으로 ‘함께하는 신나는 뮤지컬’을 지난해 7월 13일 김포 석암재활원을 시작으로 전국 10여곳에서 공연해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먹는 즐거움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장애인요양원 ‘섭식케어 초청강연 및 사례발표회’ 중증장애아대상 프로그램 운영... ‘섭식기능 향상’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12월 8일 제주한라대학교 작업치료과 채수경 교수를 강사로 초청,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아동 관련 종사자 및 관련 학과대학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섭식케어 초청강연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채 교수는 ‘연하곤란 장애’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음식을 보고 음식을 향해 손을 뻗어 음식을 입으로 가져와서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섭식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며 “이런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적절히 지도해 줌으로써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왼쪽 구강 운동을 통해 보다 대칭적인 움직임을 유도했던 아동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구강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던 아동에 대한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섭식케어프로그램을 총괄한 이경아 사회복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섭식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먹는 즐거움, 섭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됐다”면서 “얼굴, 입술, 볼, 혀 등 과민하거나 둔감한 감각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촉진시켜 씹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강기능 강화훈련과 섭식지제,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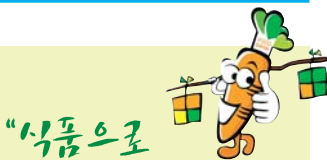


식기구 등 부적절한 식사환경의 개선을 통해 전체적으로 섭식기능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평했다.

정석왕 원장은 “이번 섭식에 관한 연구가 장애아동들이 보다 즐겁게 섭식생활을 영위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장애인요양원은 중증장애아동(뇌병변·지적장애)의 구강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섭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아동 8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주 5회 섭식케어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경애 명예기자〉



10·11월 식품 기탁자



▲SMC던

킨도넛=도

넛 6319

개 ▲명당

양과 (신제

주)=빵 750개 ▲제주물

류빵집 (폼과도르)=빵

800개 ▲바로방베이커리

=빵 800개 ▲제주민속떡

집=냉동떡 40kg ▲(주)금

강축산유통=육류 250kg

▲(주)서찬문축산=육류

220kg ▲(주)신세계이마트

=통조림류 17개 ▲CJ(주)

=기타 식재료 688상자

▲롯데칠성=음료 963상

자 ▲(주)오투기=부식류(라

면 등) 8875개

지도력 배양교육 봉사활동



제주도내 중학교 정·부 학생회장 70여명은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지도력 배양교육의 일환으로 12월 21일 제주영송학교를 방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영송학교 어울림터에서 장애이해교육을 받은 후 중·고등부 학급에 배정돼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키움사업단-초등교 협약식

한 국
학 교 사
회 복 지
사 협 회
제 주 지
회 키움



사업단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위해 지역 내 학교와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평대·종달·하도·대흥초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참여했다.

2007년도 송년의 밤

유진재활센터(원장 최은미)는 12월 14일 제주해군호텔 연회장에서 이용자 가족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수자씨와 오성렬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2007년도 사업보고,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도자기와 퀼트 등의 전시회가 열렸다.

소/식/마/당

2007 이웃사랑바자회 성황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와 (주)제주문화방송이 공동 주관해 12월 7~8일 이틀 동안 제주종합경기장 야외광장에서 열린 ‘2007 이웃사랑 바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바자회에는 각 사회복지시설·단체 직원, 회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68개의 부스에서 의류와 악세서리, 향토음식 등을 판매했으며, 수익금은 각 시설·단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은빛마을 노인복지센터, 음악 통한 경로잔치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은빛마을 노인복지센터(원장 한애정)는 지역주민 통합프로그램인 ‘제1회 음악의 성찬으로 마련한 경로잔치’를 11월 10일 마련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조천읍 관내 노인 300여명과 봉사자 및 후원자 150여명이 참여해 농어촌 지역에서 다양한 음악의 세계를 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라복지관 2007 송년행사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한해 동안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어르신 송년행사를 12월 13일 복지관 강당에서 열었다.

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의 바이올린 연주 및 마술, 댄스, 다도시연 등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율동과 풍물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제주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개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지부장 박동신)는 11월 10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도내 35개 복지시설 아동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아동들은 교사들의 지도 아래 제작한 작품을 발표하고 공연을 펼쳤다.

또 개그 프로그램 ‘까다로운변신생’ 코너로 유명한 개그맨 번기수씨의 초청 공연도 열렸다.

애월읍 경로당 임원 리더십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택)은 12월 21일 애월읍 지역 경로당 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애월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홍성진 애월읍주민자치담당을 강사로 초빙, 보조금신청 및 집행·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리더십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은 경로당 자생력 배양과 리더십 있는 시니어되기 일환으로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시설및 안전관리, 회계 및 재정관리, 인간관계 개선과 의사소통 기술, 회의진행 능력 증진 등의 리더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겨울나들이기금 마련일일호프



인효원 보은의집·실버하우스는 12월 8일 어르신 겨울나들이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개최했다.

이날 일일호프에는 봉사자와 지역주민 8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인효원은 이날 얻은 수익금으로 다음달 중에 어르신 온천나들이를 떠날 예정이다.

“사랑 담긴 김장으로 겨울 추위 녹이세요”

자원봉사연합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1000포기담가 지역아동센터 31곳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회장 이동안)는 12월 21~22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자원봉사공동작업센터 ‘행복나눔터’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2001년 이후 해마다 김장을 담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연합회 회원 100여명은 찬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뒤로 하고 김장나누기 행사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배추 1000포기를 손질하여 절이고, 22일에는 사랑과 희망의 양념을 배추에 정성스레 듬뿍 채워 지역아동센터 31곳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가한 회원은 “어렵지만 밝고 씩씩하게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김치만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한 해를 마감하는 뜻깊은 연말에 이런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서로의 정도 나누고 사랑도 느낄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해 손수 김장을 담그면서 일방적인 수혜대상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계기와 자원봉



사자들과의 어울림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동안 회장은 “우리의 조그만 정성이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우리가 담근 김치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은행과 관덕라이온스클럽, 제주마생산지협회, 금호타이어제주영업소, 우리마트가 후원했다.

〈이소영 명예기자〉



장애아동 실내놀이터 ‘아이마루’ 복적

도내 최초로 지난해 11월 문을 연 장애아동 실내놀이터 ‘아이마루’에 어린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마루’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마루·공간이라는

고, 신체·정서발달을 유도하는 유아체육 및 웰빙클린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돼 너무 좋다”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어울리며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의미가 더한 곳”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아이마루’에는 미끄럼틀, 흔들그네, 암벽타기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유아체육을 비롯해 성장마사지, 댄스 및 요가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아이마루’가 장애아동들이 놀이를 통한 사회성 훈련과 스트레스 이완, 신체근육 사용을 통한 재활 효과를 거둬 비장애아동과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장 한달 새 400명 발길 ‘입소문’

“장애·비장애아동 사회통합” 기대

뜻으로 장애아동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특수설비와 지도교사를 갖춘 전문 놀이공간이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아이마루’가 개장한 이후 한달만에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비장애아동 400여 명이 이곳을 이용했다.

하루 평균 20여명의 어린이가 ‘아이마루’를 찾고 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하는 점점 늘고 있다.

장애아를 둔 한 어머니는 “놀이설비도 잘 갖춰져 있



인터넷중독 해소사업 우수상 道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박한샘)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인터넷 중독 해소사업 평가에서 기관부문 우수상(한국청소년상담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2007년 한해 동안 인터넷 중독 치료협력병원 구축을 통해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상담에서 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 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알/림/마/당

■ 미술심리치료 워크숍

제주가족사랑상담소는 특수교육 종사자와 상담·교육 및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13일 동작훈련을 적용한 미술심리치료 워크숍을 가족사랑상담소 교육실에서 갖는다.

워크숍에서는 류정자 교육학 박사(부산비율연구소장)가 강사로 나서 다른 사람의 정서를 파악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며, 오는 8일까지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

문의=064-726-3277.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모집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2월 대학 졸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원서접수 기한은 오는 7일이다.

문의=064-796-9091~3.

신나는아람단 활동!

나는 아람단이다. 내가 아람단을 든 이유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체험을 많이 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다. 처음 아람단 활동을 했었을 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했는데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도 친해지고 여러 가지 경험도 쌓아졌다.

우리 학교 아람단에서는 제주장애인요양원과 제주케어하우스에 봉사를 하러 간다. 봉사를 처음 할 때는 많이 힘들고 짜증이 났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 많이 재미있어졌다.

제주장애인요양원에 처음 봉사를 하러갔을 때 다리가 불편한 언니가 우리에게 많이 설명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줬다. 그때는 그 언니가 너무나도 고맙웠다. 그리고 봉사를 할 때에 때로는 장애인은 무섭기도 하고 싫기도 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열심히 봉사를 했다.

나는 장애인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그 힘든 몸을 이끌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느낀 점이 또 있다. 무엇이냐면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장애인은 우리보다 몸만 불편한 것이지 장애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기억에 남는 점은 춘계

야영을 간 것이다. 춘계 야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힘을 모으며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다.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스포츠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시각장애인 체험은 눈가리개로 눈을 가려서 산길을 걷는 것이다. 때로는 무섭기도 했다. 나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다. 무엇이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 체험은 종이컵에 스포츠를 넣어서 자기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스포츠에게 고맙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우리를 밝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도 앞으로 스포츠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람단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도 있다. 여러 사람과 서로 도우면서 하면 웃음도 찾아오고 재미있다는 것이다. 아람단 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 경험을 쌓게 해주는 활동인 것 같다. 앞으로 아람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아람단이 더욱더 세계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아람단 파이팅!!~~



고 은 빈

귀덕초등학교 5년

지역주민 컴퓨터 무료강좌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시설장 황호민)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농어촌 결혼이주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 컴퓨터 무료강좌’를 12월 10일부터 1개월간 실시하고 있다.

컴퓨터 무료강좌에서는 자판 익히기, 문서작성, 인터넷 검색 등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Column 칼럼

큰 의미없는 사회복지예산 20% 약속



고 현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문위원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고 한다.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냉소적 표현이다. 도지사는 후보자 신분일 때 사회복지예산 20%를 약속했고, 당선된 후에도 연도별 확충계획을 통해 2008년을 기점으로 20% 이상으로 확충해 ‘사회복지모범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올해 예산 15.8%에 그쳐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승인한 제주도의 2008년 사회복지예산은 작년 17%에 달하던 것이 15.8%로 내려 앉았다.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된 것이다.

하가야 제주도의 산적한 현인과 재정투입처가 얼마나 많은가. 재정자립도가 30%선까지 후퇴한

반면, FTA 체결 후 농민보호책 마련, 해군기지처리비용 마련 등 현안처리예산과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해 개발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복지는 그 다음의 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애초부터 복지예산의 국비의존도가 높고 지방재정은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예산 20% 확보는 쉽지 않은 것이었다. 이보다도 필자는 현 도정의 사회복지예산 20%의 내용과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 궁금증을 갖고 있어 이를 나열해 보겠다.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편성의 기준과 범주는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의 주민생활지원국 등 관련 복지부서의 부서 예산편성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방법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OECD국가가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적 연금과 보건의료보험을 포함하는 보장예산은 상당부분 제외돼 있다. 기교를 잘 부린다면 오히려 20%를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복지예산은 그 특성상 민간보조목(민간경상보조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사회복지이용객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민간지원예산도 곳곳에 있다. 이를 사회복지예산이라 해

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된다.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지표설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한다. 년 단위를 묶거나 쪼개어 복지대상인구의 변화와 재정투자추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측정이 있어야 연차별 복지계획수립에 타당성을 가질 수 있고 평가도 용이하다.

예산편성 위한 지표설정 우선

하지만 제주도의 각종 보건·의료·복지계획들은 이러한 지표가 생략된 경우가 허다하다. 생략이 아니라 개발된 지표가 없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지표개발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만든 적이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본질적인 사회복지예산의 범주와 지표설정이 없었기에 애초 20%의 의미는 필자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었다.

사회복지총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근무하는 시설 예산을 문제없이 지원받으면 총량이 늘어나는 것인지, 좀더 촘촘하고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마저 관례와 편의에 무덤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時論 시론

전국 최상으로 평가된
제주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빠르고 신속한 정보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삶의 질은 사회복지환경과 직결된다.

따라서 지역의 복지환경 정보화는 주민들의 복지수준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전국의 각 지역간 비교 검토하는데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한다.

특히 제주도는 세계 속의 제주를 표방하며 아심차게 특별자치시대를 열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에 걸맞는 사회복지 통계자료 확보와 관리,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낸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청소년·장애인 복지서비스 ‘으뜸’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수준 높이는 핵심돼야

그런 점에서 제주지역 민간사회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해 ‘제주도 사회복지지표(2000~2005년)’를 펴낸 것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제시된 사회복지 지표들이 전국적 차원이어서 지역차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던 데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던 터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당국은 이번 연구결과를 효율적인 제주형 복지사회 구현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보다 주목하는 점은 ‘인구당 복지시설 수’ 데이터를 이용, 제주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을 다른 시·도와 비교한 결과 제주도가 1위로 평가됐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준은 전국 최상이었다. 그리고 노인 복지 서비스도 상위권이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평가에는 예산, 시설 수, 정책지원, 프로그램 수, 서비스수혜자수 등 여러 지표들이 활용될 수 있다. 지역적 환경 등에 따라 지표의 활용도 역시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이번 평가는 전국 비교라는 방대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고 자료를 가능한 객관화시키려고 애를 쓴 흔적들이 두드러진다. 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의 활동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전국 최상이라는 평가가 정작 현실적 체감도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전문 인력과 예산부족이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지역별·분야별 복지서비스 편중이란 내부적 문제도 여전하다.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닌 것이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져야 하는 이유다.

사회복지협의회 역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만의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복지지표 개발에 진력하여 제주지역 복지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핵심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희망찬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제주사회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나은 가치창출 노력과 참여이탈로 선진사회로 가는 바로미터란 점을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김 범 훈

제주일보논설위원

독자의소리

캐나다의 노인복지



고 수 희

평안전문요양원 부원장

운이 좋았던 덕에 2006년 7월부터 1년을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돌아왔다. 내가 살았던 곳은 밴쿠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구 40만의 도시 씨리. 씨리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안내책자에 적혀있는 ‘이곳 씨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곳’이라는 문구였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다문화 사회를 이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이뤄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도 매력적이었지만, 노인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나는 당연히 캐나다의 노인복지에 관심이 더 많았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의 14%를 차지하는 캐나다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거리에서든, 상점에서든, 커뮤니티센터에서든 활기찬 노인들의 모습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캐나다의 노후 소득보장은 3층 보장제도로 되어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1단계 공적연금에는 노령연금, 보충적 소득보장, 수당 등이 있으며, 2단계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이 있다. 3단계의 소득보장은 민간차원에서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이 해당된다.

연방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 이외에도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각 주정부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노인들의 당당함은 이러한 다차원적인 소득보장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생각됐다.

그러면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내가 살던 아파트의 맞은 편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에는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건강·여가·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노인을 위한 시니어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루는 그 커뮤니티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석한 적이 있다. 행사장의 한 부스를 찾았더니, 한 할머니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들은 노인들 스스로가 직접 조직, 운영하며 자원봉사를 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야말로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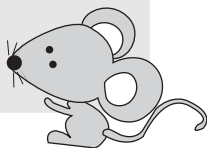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돼 나아갈 것이다. 노인에게 보다 안정되고 나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노인계층을 ‘문제를 가진 계층’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없다면 노인복지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을 캐나다의 노인복지를 통해 깨달았다.

비록 캐나다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지만 그 곳에서의 시간들, 그곳에서의 경험들이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08년 무자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

노인 60%에 월 8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2008년 무자년(戊子年), 복지정책은 기초노령연금 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예정돼 있다. 올해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을 노인·장애인, 복지·청소년, 여성정책, 보건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노인·장애인분야

장애인 차별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노인들 중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오는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70세 이상 전체 노인 297만명의 61%다.

이들 대다수에게는 이달 말부터 매월 최고액인 8만 4000원이 지급되지만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에게는 소득인정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연금액이 적게 결정된 데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뒤늦게 신청한 노인들은 이달 중 금

용조회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면 1월분 연금부터 소급해서 지급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경로연금제도는 폐지됐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교통수당의 경우

청을 비롯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무장애시설 설치가 완료된다. 민간시설은 2011년까지 대상 시설의 10%에 무장애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장애인복지일자리 156명,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43명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 시행되며,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안마사 교육(2년, 11개 과목)과 정도 운영된다.

오는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이법은 고용 뿐만 아니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를 규정했다.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조순옥·추영민 명예기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치매와 중풍 등에 시달리는 노인질환 치료비를 함께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올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분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사진 공개

전국 최초로 제주도 가 시행하고 있는 무담보·무보증 용자 제도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가구에 채권담보를 없애고 연 2.5%의 이자율로 최고 1500만원까지 대출해 줬으나 올해에는 2000만원까지 늘려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는 월 120만5000원(4인 가족 기준)에서 12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돼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로 전환되는 가구가 증가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

출산율 회복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용품, 보육, 종합검진 등 다양한 우대 할인혜택을 주는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활급여 특례가구에 회



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경우 질환자는 1종, 나머지 가족은 2종으로 확대 적용돼 가족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한층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외에 사진, 구체적인 주소와 실제 사는 곳,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 료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에서 10년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역시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여성정책분야

보육료 추가 지원...보육 비용 줄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가 4층은 50%에서 60%로, 5층은 20%에서 30%로 10% 추가 지원된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에 비해 3% 인상돼 보육비용이 줄어든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대상(도우미 18명, 지원가정 180가정)과 지원액(사업비 2억원)이 확대되며, 결혼이민자에게 전문강사와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 시행된다.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지

역 확대로 농어촌지역내 보육시설 133곳에 추가로 취사부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돼 보육시설 운영이 활성화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모·부자'에서 '한부모' 등으로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며, 선정기준 역시 지난해에 비해 가구별 기준액이 평균 5% 인상돼 수혜대상자의 폭이 넓어진다.

사업장내 여성근로자를 위한 탁아·수유시설 운영 지원, 여성친화적 기업인증제 실시 등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사업과 창조적이고 생산성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취약계층여성 지원사업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분야



'건강도시 제주' 기반 구축 지속 추진

량 측정공표 등 '건강도시 제주' 기반구축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서귀포보건소에서도 실시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사업도 시행된다. 4·9·18·30개월, 5세에 검사하고 구강검진 2회를 포함해 총 7회 검진이 이뤄지며, 1인당 1회에 2만

4480원이 지원된다.

오는 8월부터는 북부보건소에서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와 영아 등에 적절한내용의 보충식품을 공급하는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세째아 이상 0세군 자녀에 대해서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BCG,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인 서귀포·남부보건소가 증축되고, 김녕보건지소와 장전보건진료소가 이전 신축된다. 보건(지)소 노후의료장비 교체로보건의료서비스도 향상된다.

또 건강도시지표 개발과 도민 이용 오름에 대한 운동

謹賀新年

“大賞” 수상



2007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

향토기업——
 제주은행